

# 18세기 연행록에 반영된 북경 천주당 체험과 西學 인식

신익철  
한국학중앙연구원

## 1. 문제의 제기

조선은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가장 뒤늦게 서구와 접촉한 나라였다. 18세기에 중국과 일본이 서구 문명과 직접 접촉하고 있었던 데 비해, 조선은 이렇처럼 직접적인 교류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중국과의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서구 문명과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었다. 18세기 들어 청국은 국내의 각종 반란을 진압하고 정치적 안정을 찾게 되면서 조선과의 화해를 도모하였으며, 조선 역시 효종대의 北伐策에서 벗어나 청국과 새로운 관계 수립에 나서게 된다.

청국을 매개로 하여 조선과 서구의 문명이 접촉하는 주된 통로는 북경의 천주당이였다. 북경에는 천주당이 네 곳 있었으며, 이곳은 유럽의 선교사가 상주하면서 서구의 과학 문명 및 종교를 전파하는 진원지였다. 북경 천주당을 중심으로 한 조선과 서구 문명의 만남은 18세기에 가장 활발하고 순수한 형태로 이루어졌다.<sup>1</sup> 현전하는 연행록에서도 이 점은 잘 드러나니, 서구 문명과의 접촉 기록이나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여타 시기에 비해 18세기의 연행록에 압도적으로 많이 보인다.

청나라 강희 연간(1662-1722) 이래 북경 천주당은 연행 사절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으며, 옹정(1723-1735) 건륭(1736-1795) 연간에 이러한 풍조는 절정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홍대용의 다음과 같은 기록은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준다.

명나라 만력(萬曆) 연간에 이마두(利瑪竇; Matteo Ricci, 1552~1610)가 중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서양 사람과의 통교(通交)가 시작되었다. …<중략>… 성 안에 사당(四堂: 동당·서당·남당·북당)을 지어 그들을 살게 하고 천상대(天象臺)라 불렀다. 이 때문에 서양의 학문이 성하기 시작하여 천문(天文)을 말하는 이는 모두 그들의 기술을 조술하게 되었다. …<중략>… 강희(康熙) 연간 이후로 우리나라 사신이 연경에 가서 더러 그들이 있는 집에 가서 관람하기를 청하면, 서양 사람들은 매우 기꺼이 맞아들이어 그 집안에 설치된 특이하게 그린 신상(神像) 및 기이한 기구들을 보여주고, 또 서양에서 생산된 진기한 물품들을 선물로 주었다. 그러므로 사신으로 간 사람들은 선물도 탐낼뿐더러, 그 이상한 구경을 좋아하여 해마다 찾아가는 것을 상례(常例)로 삼고 있었다. …<중략>… 유송령(劉松齡)과 포우관(鮑友官)은 남당에 거처하였는데 산학(算學)에 더욱 뛰어났다. (남당은) 궁실과 器用이 네 당 중에서 으뜸이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항상 내왕하는 곳이었다.<sup>2</sup>

위의 글을 통해 우리는 이 시기 연행사들이 북경 천주당에서 서구 선교사들의 환대를 받으며 서양 그림이나 기물을 자유롭게 접하고 있었으며, 서양의 진기한 물품들을 선사받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환대를 받으며 기이한 구경을 할 수 있었기에 사신 일행에게 천주당 방문은 하나의 상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홍대용은 북경의 천주당 네 곳 중에서 특히 남당이 가장 뛰어났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내왕하는 곳이라 했다. 남당은 연행사들의 숙소가 있었던 玉河館에서 천주당 네 곳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사신들이 드나들기에 편리한 곳이었다. 1760년(영조

<sup>1</sup> 여기에서 ‘가장 활발하고 순수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 함은 17, 19 세기와 대비하여 18 세기의 서구 문명 접촉의 특성을 지적해서 한 말이다. 17 세기에는 조선왕조와 청국이 각기 상대국에 대한 침범설이 나오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내부적으로 조선은 북벌책을 도모하고, 청국은 三藩의 亂으로 대표되는 각종 반란에 시달리고 있었다. 따라서 양국간의 교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서구 문명과의 접촉 역시 드물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었다. 19 세기에는 세도정권이 수립되어 신유사옥을 필두로 서학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였으며, 북경 천주당 방문 역시 금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구 역시 무력적인 방식으로 개항을 강요하여 19 세기 후반 수차례의 洋擾가 일어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조선과 서구 문명의 만남은 직접적으로 접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은 매우 왜곡된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sup>2</sup> 『담헌연기』, 「劉鮑問答」. 번역은 『국역 담헌서』(민족문화추진회, 1976.)의 것을 참조하여 다듬은 것임.

36) 자제군관의 신분으로 연행한 李商鳳이 연행의 가장 큰 구경거리로 서양 풍악·망원경·천주당 그림 및 서양지도 등을 꼽고 있는 데서<sup>3</sup> 이 시기 연행사들의 북경 천주당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음을 잘 말해준다.

조선의 일급 문인인 연행사와 유럽의 선진적 지식인인 예수회 선교사들이 북경의 천주당에서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은 연행록에 적잖게 남아 있는 편이다. 특히 연행록은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지식인의 사적인 글쓰기 기록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전혀 이질적인 문명을 접하는 데서 오는 충격과 경이로움, 그리고 이를 소화해내기 위한 갈등 등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연행록에 담겨진 서구 문명과의 접촉 양상은 이 시기 지식인들이 서구 문물을 직접 접하고 느낀 반응과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수준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서구 문명에 대한 인식을 해명함에 있어서 북경 천주당과 관련한 기사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18세기 연행록 중 북경 천주당 방문 기록과 관련 기사를 검토하고, 서학과의 접촉 양상과 그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2. 조선 사신들의 북경 천주당 체험

### 1) 天主堂 南堂과 子弟軍官

조선조 연행사들이 남긴 연행록은 그간 자료 수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대부분의 기록이 발굴 정리된 편이다.<sup>4</sup> 이 중 18세기의 연행록은 100여종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북경 천주당을 방문하고 남긴 기록이 상당수 확인된다. 18세기 연행록 중 천주당 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것은 총 18종에 달한다. 대략 1/5에 해당하는 연행록에 천주당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바, 당시 북경 천주당에 대한 조선 문사들의 관심을 짐작하게 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

<18세기 연행록에 나타난 천주당 관련 기록><sup>5</sup>

출발시기	연행록 제목	저자	직책	방문한 천주당	비고
1711. 11	燕行日記	閔鎭遠	副使	언급없음	
1712. 11	老稼齋燕行日記	金昌業	子弟軍官	남당 방문	天主像·渾天儀·自鳴鐘 언급
1712. 12	燕行錄	崔德中	隨行軍官	언급없음	
1720. 7	燕行雜識	李頤命	正使	南堂	삼사가 방문하여 친문 역법 토론
1720. 7	一菴燕記	李器之	子弟軍官	南堂, 東堂, 西堂	「西洋書記」·「渾儀記」남김
1720. 11	庚子燕行雜識	李宜顯	正使	남당 앞 지나감	천주당 방문 못해 아쉬워함
1727. 10	桑蓬錄*	姜浩溥	副使	南堂	天主像·自鳴鐘 언급
1732. 7	壬子燕行雜識	李宜顯	正使	南堂	삼사가 방문
1732. 7	燕行日錄	韓德厚	書狀官	언급없음	
1755. 11	燕行日錄*	미 상	軍官(?)	南堂	劉松齡과 면담
1760. 11	北轅錄*	李商鳳	子弟軍官	東堂	天主像·天主教의 이치 언급
1765. 11	湛軒燕記/을병연행록	洪大容	子弟軍官	南堂, 東堂	劉松齡, 鮑友官과 면담
1773. 11	燕行錄*	嚴 璠	副使	南堂	

<sup>3</sup> <北轅錄> 「往來總錄」 권 4, 1761년 1월 8일 기사, “第一奇觀 薊門烟樹 西洋風樂及遠鏡 天主堂畫 圓明園宮室. 其次 西洋方輿圖 太液池 五龍亭 雍和宮轉臺 正陽門外市肆 寧遠衛祖氏牌樓 宋家庄敵樓 弘仁寺萬佛.”

<sup>4</sup> 현재까지 발굴된 연행록은 대략 500 여종에 이르는데, 임기중편 <연행록전집>( 동국대 출판부, 2001)에 그 대강의 자료가 수집 영인되었으며, 최근에는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에서 여기에 누락된 자료를 찾아 해제집을 발간한바 있다.<국학고전 연행록해제>, 유성문화사, 2003)

<sup>5</sup> 원재연, 「17~19세기 조선사행의 북경 천주당 방문과 서양인식」(『서세동점과 조선왕조의 대응』, 한들출판사, 2003.)에 1649~1876년 연행록 중 천주당 관련 기록이 있는 것을 대표로 제시한 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을 이를 참조하고 누락된 것을 보충하여 18세기 연행록 중 천주당 관련 기록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하는 자료는 총 5종으로 \*표시한 연행록이다.

1780. 6	熱河日記	朴趾源	子弟軍官	미방문	「北京天主堂記」 남김
1787. 10	燕行錄	俞彦鎬	正使	미방문	부사·서장관 천주당 방문
1790. 5	燕行紀遊	徐浩修	副使	미방문	방문 못함을 아쉬어함
1791. 11	燕行錄	金正中	軍官(?)	南堂 앞 지나감	
1798. 10	무오연행록	徐有聞	書狀官	미방문	致馨의 천주당 방문사실 기록

위의 도표에서 보듯 천주당에 대한 기록을 남긴 이들의 연행에서의 직책을 보면 정사 4명, 부사 4명, 서장관 2명, 자제군관 5명, 수행군관 2명, 기타 군관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2명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자제군관이다. 이들은 5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거니와, 서학에 대한 관심과 그 기록의 상세함에 있어서 여타 신분의 기록을 압도하는 풍부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18세기를 대표하는 연행록으로 꼽혀온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홍대용의 <담헌연기>·박지원의 <열하일기>가 모두 자제군관의 기록이거니와,<sup>6</sup> 이기지의 <일암연기>와 이상봉의 <북원록> 또한 여타 연행록에 비해 북경 천주당에 대한 기록이 상세한 편이다.

여기에서 잠시 자제군관이란 독특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연행 사절을 대표하는 三使-정사·부사·서장관-의 경우 ‘子弟軍官’이라 하여 자신의 인척 중에서 한두 사람을 自薦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이들은 사신을 개인적으로 호위하며 보좌하는 군관의 신분으로 무관 복장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문인 학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북경 여행은 세상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일종의 수학여행 같은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sup>7</sup> 이처럼 자제군관은 사행 일행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처지에 있었으며 문신 학자로서 지적 호기심 또한 왕성하였기에, 이들의 연행록에 천주당에 관한 기사가 가장 상세하게 나타남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어쩌면 조선 조정에서 자제군관의 제도를 두어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 자유롭게 북경을 여행하도록 한 것은 사적으로 청국의 虛實을 자세히 살피고, 청국에 대해 나름의 대비를 하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한편 위의 표에서 북경의 천주당 네 곳 중에서 李商鳳만 東堂을 방문하고 있을 뿐, 다른 이들은 모두 南堂을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남당이 조선 사신의 숙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 기물과 위용이 가장 화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신들이 남당 한 곳만을 방문하고 있음에 비해, 이기지는 남당·동당·서당 세 곳을 홍대용은 남당과 동당 두 곳을 방문하고 있다. 두 사람의 서학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홍대용은 北學派 실학자로서 일찍부터 주목받았으며, 그의 선진적인 과학 사상과 함께 서학에 대한 관심 역시 상세하게 해명된바 있다. 이기지의 경우 그의 연행록 <일암연기>가 최근에 발굴되어 서학에 대해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진 인물임이 밝혀졌다.<sup>8</sup> 이기지와 홍대용, 이 두 사람의 연행록은 북경 천주당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흥미로운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특히 이기지의 연행록이 가장 상세하다.

연행사절의 서학에 대한 관심 중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천문 역법과 서양화의 두 가지이다. “그 사람들-서양 선교사를 지칭함(필자주)-은 역법에 정통하고 회화에 뛰어나 欽天監員의 태반이 서양인이고, 그 중 그림에 뛰어난 자들은 교대로 靑洲에 숙직하면서 畫役に 응한다.”<sup>9</sup> 라는 기록에서 서양의 천문 역법과 그림에 대한 당시의 관심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천문 역법과 서양화와 관련해 사신 일행이 관심을 가진

<sup>6</sup> 김경진, 「燕轅直指序」(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연행록선집』 X, 1976) “연경에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기행문을 남겼는데, 그중 삼가(三家)가 가장 저명하니, 노가재 김창업·담헌 홍대용·연암 박지원이다.”

<sup>7</sup> 김태준, <홍대용과 그의 시대>, 일지사, 1982, 14~17면 참조.

<sup>8</sup> 이에 대해서는 신익철, 「李器之의 <一菴燕記>와 서학 접촉 양상」, <동방한문학>30집, 동방한문학회, 2005, 참조.

<sup>9</sup> 작자 미상, <燕行日錄>, 1756년 1월 21일 기사, “其人最精於曆法 且工於繪畫 欽天監官員 太半是西洋人 其中善畫者 輪直闕內 凡有畫役 一切董成云.”

대상은 혼천의·輪道(나침반)·망원경·천주상·서양화첩·지도 등이다. 이외에 서양 문물로서 사진 행에게 흥미롭게 여겨진 것은 자명종·풍금·만년필·성냥·鼻烟·呂宋煙·吸毒石·苦果·포도주·카스테라·자동인형 기계 장치 등 각종 다양한 서양 근대 문물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중 연행사절이 가장 관심을 보인 천문 역법과 서양화에 대한 접촉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천문 역법에 대한 관심과 접촉 양상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천문과 제왕의 정치득실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災異論의 관념이 있어 왔다. 따라서 천문에 대한 관찰은 제왕의 중요한 임무로 간주되었으니, 여기에는 농경 사회에서 기후의 정확한 예측이라는 현실적 요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로 작용하였다. 조선에서 서양 역법을 처음 접한 것은 1631년(인조 9) 鄭斗源(1581~?)이 연행했을 때 선교사 육약한(陸若漢, Johannes Rodorigue)으로부터 <天文略>과 <治曆緣起> 등을 얻어오면서 부터이다.<sup>10</sup> 그 후 1648년(인조 26) 朝鮮曆과 서양 역법의 원리를 수용하여 만든 淸國의 時憲曆 사이에 윤달의 설정 등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면서부터 조선에서 서양 역법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게 된다. 시헌력의 타당성을 검토하던 觀象監에서는 1653년에 이르러 시헌력의 정확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서양의 신법을 사용할 것을 적극 건의하게 된다.<sup>11</sup> 조선에서는 이후 연행 시에 淸의 欽天監에서 시헌력에 대해 누차 배워오고 서양 역서를 수입하는 과정을 거쳐, 1708년(숙종 34)에 이르러 처음으로 시헌력을 사용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또한 日月蝕의 계산이라든가 五星算法이 정확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 불완전한 것이었다. 이에 조선왕조에서는 좀 더 정확한 서양 역법을 배우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이는 연행사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이었다.

이러한 현실적 사정이 있었기에 조선의 서학에 대한 관심은 천문 역학 분야에 가장 집중되었던 것이며, 18세기 연행록에서도 이에 대한 기록이 많이 보인다. 연행 사절은 북경 천주당에 있는 渾天儀와 千里鏡 등의 천문 관측기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선교사들과 동서양 역법의 차이점에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예 몇 가지를 아래에 소개한다.

- \* 金昌業, <노가재연행일기> 1713. 2. 15; “ 欽天監을 방문하여 혼천의를 비롯한 몇몇 기구를 보았으나, 용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 \* 李頤命, <疎齋集> 권11, 「燕行雜識」, 1720년 연행.; “ 서양인 戴進賢(Kögler, I.)와 蘇霖(Saurez, J.)이 館所를 방문하여 天主학과 曆術에 대해 논했다.”
- \* 李器之, <一菴燕記>, 1720.; 10월 26일 남당을 방문하여 동서양 천문 역법의 차이점에 대해 蘇霖·戴進賢·張安多 등의 선교사들과 토론함. 이기지는 먼저 周天度數가 동양에서는 365도 4분의 1인데, 서양에서는 360도를 사용하는 이유를 묻자, 대진현은 서양의 주천도수는 정확한 관찰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일식 월식 등의 이변에 대한 예측을 통해 증명된 정확한 것이라고 답한다. 일식 월식에 대한 말이 나오자 이기지는 동양 전통의 災異觀에 의거해 人君의 修德과 관련되어 일식 월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 이에 대해 대진현은 일식 월식 등의 이변은 인사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천지 운행의 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고 답한다. 다음으로 이기지가 12방위와 28수에 대응된 간지의 원리에 대해 묻자, 대진현은 28수는 사계절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子午正針은 옮겨지지 않는 것이라고 답함. 10월 24일 정사가 역법 서책을 구입하고자 하자 조정에서 역서의 유출을 금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음. 10월 30일 동당을 방문하여 徐懋昇<sup>12</sup>으로부터 서양 혼천의에 대한 설명을 들음. 11월 22일 북경을 떠나려 할 즈음 서무승으로부터 종이로 만든 혼천의를 선사받음. 「渾儀記」를 지어 서양 혼천의의 정밀한 제도에 대해 찬탄함.
- \* 洪大容, <을병연행록> 1766. 1. 9.; 남당을 방문하여 혼천의를 관람하고 원경(遠鏡; 망원경)을 직접 보면서 선교사 劉松齡(August von Hallerstein)에게 태양의 흑점이 안 보이는 이유를 물음. (“ 내가 묻기를 ‘ 해 속에 세 개의 검은 점이 있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으니 어떤 이유입니까?’ 하니,

<sup>10</sup> 李漢, <星湖僊說> 권 4, 「萬物門」

<sup>11</sup> 노대환, 「조선 후기의 서학유입과 서기수용론」, <진단학보> 83 집, 진단학회, 1997, 126~128 면.

<sup>12</sup> 徐懋昇은 포르투갈 출신의 선교사인 徐懋德(Andres Pereira; 1690~1783)의 오기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는 1716년 중국에 입국하여 『天地曆象考成』 등을 저술한 인물로 천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1741년 관상감원 安國賓이 역관 卞重和, 金在鉉 등과 함께 戴進賢·서무덕에게 산법을 배우고 『日月交食表』 등 여러 서적을 얻어온 일이 있다.

유송령이 말하길 ‘그대가 그 묘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검은 점이 두루 박혔지만 해의 형태는 이미 둥근 것이고, 주야로 돌아갈 적이면 구르기가 수레바퀴 같은 까닭에 좌우에서 바라보매 이 면에 점이 있으면 저 면에 없으며, 이 면에 적으면 혹 저 면이 많을 적이 있습니다.’) 천문관 이덕성은 서양 천문 역법을 배워오는 것이 임무였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함.

\* (朴趾源, <熱河日記>, 1780.; 관상대에서 천문 관측기구들을 보면서 예전에 국내에서 홍대용과 정철조(鄭詰祚)가 밤을 새워 천문의 이치에 대해서 토론하던 기억을 떠올리고, 자신은 그 제도와 용도를 알 수 없다고 함.

이상의 예를 보면, 18세기 연행사들이 천문 역법에 대해 관심을 보인 대상은 주로 혼천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인사들이 천문 역법에 관해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에 그 원리를 자세히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는 데에 비해 이기지와 홍대용 두 사람은 서양의 천문 역법의 원리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기지는 동서양 천문 역법의 차이점에 대해 천주당의 선교사들과 토론을 벌이고 서양의 渾天儀를 자세히 관찰한 결과, 동양의 천문 역법에 관한 전통적인 해석에 상당한 오류가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이기지는 서양의 혼천의를 보고서 오랜 의문을 풀게 되었다고 하고, 天圓地圓說이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진리라고 하면서 동양 역법에서 절대시되었던 邵雍의 천문우주관의 결점을 지적하고 있다.<sup>13</sup> 그런 바탕 위에서 이기지는 일식이나 월식이 군주의 治德과 관련된다고 설명하는 災異論이나 하늘의 12방위와 28수에 대응된 간지의 원리에 대해서 서양의 천문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기지가 서양의 천문관이 동양의 그것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원리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무승이 서양 혼천의를 이기지에게 선사한 것은 서양 역법에 대한 그의 진지한 관심과 개방적 태도에 감동을 받았던 때문이 아닌가 한다.

홍대용은 태양에 흑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망원경을 보면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연유를 캐묻고 있다. 홍대용은 자신의 집에 사설 천문대라 할 수 있는 籠水閣을 설치하고, 여기에 혼천의와 자명종 등을 두어 천문을 관측하였던 실학자였다. 농수각의 혼천의는 홍대용이 羅景積과 鄭詰祚와 같은 과학자의 도움을 받아 3년간에 걸쳐 만든 것이었다. 이처럼 천문학에 비상한 관심을 가진 그였기에 천주당의 망원경으로 직접 태양을 관찰하면서는 남다른 흥분을 느꼈을 것이다. 흑점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묵고 있는 데에서도 그러한 흥분감이 감지된다. 홍대용의 질문에 대답하였던 유송령은 당시 청나라 欽天監의 책임자인 監正의 직위에 있는 인물인 만큼 그의 천문학에 대한 지식은 당대 최고의 안목을 지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태양의 흑점의 관측을 두고 벌어진 이들 두 사람의 문답은 동아시아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들의 담화 내용으로 이해된다.

### 3) 천주상 및 서양화첩에 대한 관심과 접촉 양상

북경의 천주당을 방문한 대부분의 사신 일행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것은 천주당의 天主像이었다. 아마도 천주당 안에 들어섰을 때 맞은편인 北壁에 걸린 기이한 畫像을 처음 대면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동양화와는 전혀 이질적인 화풍에서 받는 충격과 놀라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하고 있다. 18세기 연행록 중에서 이와 관련된 기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1713년 2월 9일 기사)“ 그 안(남당)에 들어가니 북쪽 벽에는 소상 하나가 걸려 있는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어깨를 내어 놓았으며, 화주(火珠)를 쥐고 있는데 얼굴은 살아 있는 듯했다.”

\* (李器之, <一菴燕記>, 1720. 9. 22, 9. 27, 10. 10, 10. 31, 10. 22, 10. 24.; 남당의 천주상·예수탄생화·십자가의 예수상 등을 관람하고 서양화책 5권을 빌려봄. 선교사로부터 서양화 7장을 선물 받음. 「西洋畫記」를 지음. (“ 천주당 벽 위에 천주상을 그렸는데, 한 사람이 붉은 옷차림에 구름 가운데 서있고 그 옆에 여섯 사람이 구름 기운 가운데 나오기도 하고 숨어있기도 하였다. 혹은 전신을 드러냈고, 혹은 반신을 드러냈으며, 혹은 구름을 헤치고 얼굴을

<sup>13</sup> 신익철(2005), 앞의 논문, 185 면.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 몸에 두 날개가 달린 사람도 있었는데 眉目과 머리카락이 살아있는 사람의 그것과 똑같았다. … 짐승과 蟲魚를 그린 모습은 하나하나 살아있는 것과 매우 비슷했다. 비록 나비나 벌처럼 미세한 것일지라도 모두 수십 종을 그려 놓았으니, 粉蝶과 繡蝶, 壺蜂과 蜜蜂 등속의 갖가지 모습과 색깔을 털끝만치의 같고 다름을 다투어 그렸다. 아울러 그 종류의 수를 반드시 다 그리고자 하여 주둥이와 눈, 털과 눈썹까지도 각기 그 자태를 다 표현하였기에 비록 이름을 적지 않더라도 한번 보면 그것이 어떤 벌레와 짐승인지 알 수 있다. 책을 펼치면 갑자기 벌레와 물고기가 꿈틀거리며 나오거나 날아올라 손으로 움켜질 듯 했다. 성읍과 인가를 그린 그림은 겨우 한두 자의 크기인데 높은 데 올라 내려다보는 듯하였으며, 성에 가득한 인가는 다만 그 집의 용마루만 보일뿐 지붕은 까맣게 칠해 놓았다. 濃淡과 淺深으로 明暗이 은은히 드러나 보이는 모습을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고저와 원근의 형상을 보아 알 수 있게 하였다. …” )

\* 李健命 <寒圃齋使行日記>, 1722. 1. 29.; “ 서양인이 畫圖冊 여러 권을 보내왔다. 이는 곧 서양 여러 나라의 宮室과 인물들을 그린 것이었는데, 대부분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 姜浩溥, <桑蓬錄>, 1727. 12. 29.; 남당을 방문하여 천주상을 봄. “ 그림은 모두 정체를 띠고 활기가 있어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으니, 그 화법의 교묘함은 언어로 형용하기가 어렵다. 세상에서 서양화를 神品이라고 칭함은 대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사람은 요기를 띠고 있고 금수 또한 괴기를 간직하고 있는바 재주가 또한 그러한 것이다. 그 그림은 참으로 꿈꾸는 듯 신비롭고 귀신이 화한 듯 한데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니, 진실로 요괴의 재주라 할 것이다.”

\* 李宜顯 <壬子燕行雜識>, 1732.; 남당을 방문하여 천주상을 봄. “ 천상을 그린 것이라 높이가 하늘의 별에 닿을 만하고, 일월성신을 그린 것은 물론이고 벽에 陰鬼를 많이 그려놓아 절의 十王殿과 비슷하다. 그렇지만 幽闇하고 陽明한 기상이 없으니 괴이한 일이다.”

\* 작자 미상 <燕行日錄>, 1756. 1. 21.; 남당을 방문하여 천주상을 봄. “ 천주당 안은 넓고 광활한데 사벽에 모두 그림을 그려놓았다. 그림의 공교로움은 신기라 하겠으니, 진실로 천하의 기이한 그림이었다.”

\* 李商鳳 <北轅錄>, 1761. 1. 8.; 동당을 방문하여 천주상을 봄. “ 그림에 소녀의 모습이 많았으며 그 중의 한 여자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팔뚝을 드러내었는데 이 사람이 천주라는 자이다. 몇 걸음 떨어져서 보면 그림인 줄 모르겠더니 손으로 어루만져보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그림인 줄을 알 수 있다. 어떤 이가 이르길 ‘ 陰陽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려 傳神하는 까닭에 멀리서 바라보면 살아 움직이는 듯 하다’ 고 하였다.”

\* (洪大容 <湛軒燕記>, 1766. 1. 9/ <을병연행록> 1766. 1. 24. ; 남당을 방문하여 천주상과 양쪽 벽에 그려진 선교사들의 초상을 봄. “ 북쪽 벽 위 한가운데 한 사람의 화상을 그렸는데 여자의 상으로, 머리를 풀어 좌우로 드리우고 눈을 찡그러 먼 데를 바라보니, 무한한 생각과 근심하는 기상이다. 형체와 의복이 다 공중에 서있는 모양이고, 선 곳은 깊은 감실 같아, 처음 볼 때는 소상인 줄만 알았는데 가까이 간 후에 그림인 줄을 알았다. 안정(眼精)이 사람을 보는 듯 하니, 천하에 이상한 화격(畫格)이었다. 동서 벽에 각각 열 명 정도의 화상을 그렸는데, 다 머리털을 드리우고 장삼(長衫) 같은 긴 옷을 입었으니, 이것은 서양국의 의복 제도인가 싶었다. 화상 위로 각각 칭호를 썼는데, 다 서양 사람 중에 천주학을 숭상하고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다. 이마두와 탕약망 두 사람 밖에는 알지 못하였다.”

“ 문을 들어가니 북벽에 천주화상과 좌우에 벌인 짐물이 대강 한 모양이었고, 바람벽에 가득한 그림이 더욱 이상하여 그 인물과 온갖 물상이 두어 걸음을 물러서면 아무리 보아도 그림인 줄을 깨닫지 못할 것 같았다. 동쪽 벽에는 층층한 누각을 그리고 여러 사람이 앉았는데, 아래에 깃발과 장식을 많이 벌인 것을 보니 왕자의 모습과 같았다. 서쪽 벽에는 죽은 사람을 관 위에 얹어놓고 좌우에 사나이와 계집이 혹은 서고 혹은 엎드려 슬피 우는 모양을 그렸는데, 아니꼬워 차마 바로 보지 못하였다. 왕가에게 그 곡절을 물으니 왕가가 이르기를, ‘ 이것은 천주가 죽은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밖에 괴상한 형상과 이상한 畫格이 무수하였지만 다 기록하지 못한다.”

\* 朴趾源 <熱河日記> 「洋畫」, 1780.; 남당을 방문하여 천주상을 봄. “ 천주당 가운데 바람벽과 천장에 그려져 있는 구름과 인물들은 보통 생각으로는 헤아려 낼 수 없었고, 또한 보통 언어·문자로써는 형용할 수도 없었다. 내 눈으로 이것을 보려고 하는데, 번개처럼 번적이면서 먼저 내 눈을 꿰뚫고 들여다 보는 것이 싫었고, 또 내 귀로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데, 굵어 보고 쳐다보고 돌아보는 그들이 먼저 내 귀에 무엇을 속삭이였다. 나는 그것이 내가 숨긴 데를 맞힐까봐서 부끄러워 하였다. 내 입이 장차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돌연 우뢰 소리를 내는 듯 하였다. 가까이 가서 보매 성긴 먹이 허술하고 거칠게 문었을 뿐, 다만 그 귀·눈·코·입 등의 째과 터럭·수염·살결·힘줄 등의 사이는 희미하게 그어 갈랐다. 터럭끝만한 치수라도 바로 잡았고, 꼭 숨을 쉬고 꿈틀거리는 듯 음양의 향배가 서로 어울려 저절로 밝고 어두운 데를 나타내고 있었다.”

\* 徐有聞 <戊午燕行錄>, 1799. 1. 11; 남당을 방문하여 천주상과 양쪽 벽에 그려진 선교사들의 초상을 봄. “북편 벽 위 한가운데에 한 사람의 화상(畫像)을 그렸으니 계집의 상이요, 머리를 풀어 좌우로 두 가닥을 드리우고 눈을 치며 하늘을 바라보니, 무한(無限)한 생각과 근심하는 거동이라. 이것이 곧 천주(天主)라 하는 사람이니, 형체와 의복이 다 공중에 띄워 서있는 모양이요, 선 곳이 깊은 감실(龕室) 같으니, 처음 볼 때는 소상(塑像)으로 여겼더니, 가까이 간 후에 그림인 줄을 깨치니, 나이가 30세 남짓한 계집이요, 얼굴빛이 누르고 눈두덩이 심히 검푸르니, 이는 항상 눈을 치며 그러한가 싶고, 입은 것은 소매 넓은 긴 옷이로되 옷주름과 설을 이은 것이 요연(瞭然)하여 움직일 듯하니, 천하에 이상한 화풍이요, 그 앞에 향로(香爐)를 놓고 향(香)을 피우니 향기 그치지 않고, 화상 서편 벽 밑으로 큰 의자를 놓고 위에 용(龍)을 그린 방석을 깔고 꾸민 것이 극히 화려하니, 누가 앉는 곳인지? 황제(皇帝)나 앉을 곳이요, 평민이 앉을 곳이 아닐러라.

동서 벽에 각각 여남은 화상을 그렸으되 다 머리털을 늘리고 장삼(長衫) 같은 옷을 입었으니, 이는 서양국 의복 제도인가 싶고, 혹 아이 안은 모양을 그렸으되, 아이가 눈을 치올려 떠서 놀라는 형상이라, 부인(婦人)이 어루만져 근심하는 빛이요, 늙은 사나이 겹내어 손을 묶어 무엇을 비는 거동(舉動)이며, 또 부인이 병든 아이를 돌봐주는 모양이로되, 위에 흰 새 한 마리가 날개를 벌리고 부리로 흰 것을 뽑어 부인 이마에 쏘이며, 천상(天上)에는 사방으로 구름이 에웠으되 어린아이들이 구름 속으로 머리를 내어 보는 것이 그 수를 세지 못하게 많으며, 혹 장차 떨어지는 거동이라. 노인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향하여 받으려 하는 체하니, 인물(人物)의 정신(精神)이 두어 칸을 물러서서 보면 아무리 보아도 그림으로 알 길이 없으니, 기괴(奇怪) 황홀(恍惚)하여, 오래 섰으니 마음이 언짢아 좋지 않더라.”

천주당을 방문한 사신들이 거의 대부분 천주상을 본 소감을 남기고 있는바, 서양화를 처음 대하여 그 기이한 화풍에 얼마나 놀랐는지 짐작할 수 있다. “보통 생각으로는 헤아려 낼 수 없었고, 또한 보통 언어·문자로는 형용할 수도 없었다”는 박지원의 말은 서양화를 처음 대했을 때의 충격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들 문인들이 서양화를 대하고 가장 경탄했던 것은 무엇보다 인물과 사물 묘사의 핏진함으로, 대부분이 이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천주상을 대하여 “몇 걸음 떨어져서 보면 그림인 줄 모르겠더니 손으로 어루만져보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그림인 줄을 알 수 있다.”라는 이상봉의 말이나, 서양화첩을 보면서 “책을 펼치면 갑자기 벌레와 물고기가 꿈틀거리며 나오거나 날아올라 손으로 움켜질 듯 했다.”라는 이기지의 말은 이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남당의 안쪽 벽면에 개가 그려진 형상을 보고 실물로 알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다. 홍대용은 <을병연행록>에서 “큰 문을 들어가니 서쪽으로 또 문이 있는데, 이것은 안으로 통하는 문이다. 동쪽에 벽돌로 담을 정결히 쌓고 가운데 문 하나를 내었는데, 반만 열려 있어 문 밖의 집들이 은은히 비치었다. 세팔을 불러 그곳을 물으니 세팔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은 진짜 문이 아니라 담에 그림을 그려 구경하는 사람에게 재주를 보이려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이상히 여겨 두어 걸음을 나아가보니, 과연 담에 그린 그림이고 진짜 문이 아니었는데, 이것만 보아도 서양국의 그림 재주를 상상할 수 있었다.”<sup>14</sup>라고 한바 있는데, 이보다 앞서 연행했던 이기지나 강호부 또한 벽에 그려진 개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다.

서양화의 뛰어난 수법으로 대부분의 인사들이 거론하고 있는 것은 원근법과 明暗에 뛰어난 대비 수법이다. 이기지는 성읍과 인가를 그린 그림에서 俯瞰法으로 원근의 형상을 여실히 표현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서양화의 장점이 원근법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홍대용은 서양화의 원근법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준다. 천주당과 관련된 위의 기사에는 없지만 홍대용은 「유포문답」에서 “원근법에 조예가 깊었는데, 넷물과 골짜기의 나타나고 숨은 것이라든지, 연기와 구름의 빛나고 흐린 것이라든지, 먼 하늘의 빈 공간까지도 모두 正色을 사용하였다. 대개 들어 보니, ‘서양 그림의 묘리는 교묘한 생각이 출중할 뿐만 아니라 裁割 비례의 법이 있는데, 오로지 算術에서 나왔다’고 한다”라고 하여 원근법이 서양의 발달된 수학 기술에서 유래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원근법과 함께 明暗을 적절히 대비하여 사물의 입체적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점도 서양화의 장점으로 파악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상봉은 “陰陽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려

<sup>14</sup> 홍대용저 김태준·박성순 옮김,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을병연행록>, 돌계개, 158~9면.

傳神하는 까닭에 멀리서 바라보면 살아 움직이는 듯 하다” 라고 했고, 박지원은 “ 숨을 쉬고 꿈틀거리는 듯 음양의 향배가 서로 어울려 저절로 밝고 어두운 데를 나타내고 있었다” 라고 했다. 두 사람의 언급은 명암의 교묘한 배합으로 인물의 형상을 핏진하게 그려낸 수법을 가리켜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이질적인 서양화의 낯선 화풍은 보는 이에 따라 부정적으로도 느껴졌던 것 같다. 서양화풍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사람과 금수가 요기를 띠고 있으니 요괴의 재주이다 라고 한 강호부의 말이나, 절집의 十王殿과 비슷한데 幽闇하고 陽明한 기상이 없다는 이의현의 말에서 드러난다. 이는 아마도 동양화와는 전혀 다른 재질을 사용하는 서양화가 환기시키는 느낌을 말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즉 비단에다 부드러운 필묵으로 그리며 여백의 공간을 활용하는 동양화가 담담하며 산뜻한 느낌을 주는 데에 비해, 캔버스에 기름으로 갠 물감을 사용하여 다채로운 색상을 표현하며 여백을 두지 않는 유화는 강렬하면서도 거친 느낌을 주기 마련인데, 이에 대한 인상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畫意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본 점이 눈에 띈다. 홍대용은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남녀의 모습을 보고 “ 아니꼬워 차마 바로 보지 못하였다.” 라고 하였으며, 이의현이 “ 일월성신을 그린 것은 물론이고 벽에 陰鬼를 많이 그려놓아 절의 十王殿과 비슷하다” 고 한 것 역시 陰鬼를 많이 그려놓아 절집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을 드러낸 말로 이해된다.

위의 기록을 통해 볼 때 18세기 조선의 연행사들은 서양화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 근세에 연경(燕京)에 사신 간 자는 대부분 서양화(西洋畫)를 사다가 마루 위에 걸어 놓고 있다” (「萬物門」 ‘畫像坳突’ 조; 近世使燕者 市西洋畫 掛在堂上))라고 하였는바, 당대에 서양화의 기이한 화풍이 상당히 애호되는 풍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교사들은 사신에게 그림을 선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기지는 서양화 7폭, 이의현은 15폭, 이진명은 坤輿圖 2책을 선물로 받고 있다. 조선의 사신들에게 그림이나 지도책을 선물로 주면서 선교사들은 서양의 문물이나 풍속을 알리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여겼을 것이다. 미지의 사람들에게 그림처럼 분명히 자신들의 세계를 알리는 수단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3. 조선 연행사와 서양 선교사의 타자에 대한 인식

앞에서 천문 역법과 서양화를 중심으로 북경 천주당에서 이루어진 조선 사신과 서양 선교사들과의 접촉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 외에 다양하게 이루어진 양자간의 접촉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서로의 타자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18세기 전반에 북경의 선교사들은 조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으며, 조선 땅에도 북경처럼 천주당을 세우고 포교를 하고자 했다. 이에 천주당을 방문한 조선 사신들을 상당히 후대하며 조선의 지형과 북경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을 묻고 있다. 1720년 10월 10일 남당을 방문한 이기지에게 선교사들은 포도주와 카스테라 등을 대접하며, 우리나라의 도읍지와 여정에 대해 물으면서 지도를 꺼내 보였는데, 지도에는 우리나라의 형세가 방불하게 담겨져 있었다. 10월 28일 서당을 방문한 이기지는 白普·雷孝思·湯尙賢·殷弘緒 4인의 선교사와 대화를 나눈다. 선교사 일행은 사해동포가 모두 천주에 의해 태어난 형제라는 이치를 말하고, 白普는 穆克登과 함께 장백산에 올랐을 때 조선의 영토를 본 경험을 이야기하고 登州와 萊州에서 해로로 조선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묻는다. 湯尙賢이 정태현(역관)에게 조선에 가서 천주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뜻을 말하자 정태현이 이는 조정의 허락을 받아 야 하는 일이라고 답하였다. 殷弘緒는 이기지에게 <천주실의>를 선물하였다.<sup>15</sup> 백보가 목극등과 함께 백두산을 올랐다는 것은 곧 1712년(숙종 38년) 白頭山定界碑를 세워 조선과 청, 두 나라 사이의 경계를 확정하는 일을 말한다. 이 기록을 통해 백두산정계비를 세울 때에 파견된 청국

<sup>15</sup> 이기지, <일암연기> 권 3, 참조.



일행 중에 서양 선교사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기지는 18세기 연행록의 저자 중에서 서양 문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장 개방적으로 대했던 인물이기에 선교사들이 이처럼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1732년 費隱은 연행의 正使 신분이었던 이의현에게 <三山論學記>·<主制群證> 각 1책, 채색 종이 4장, 백색 종이 10장, 크고 작은 그림 15폭, 吸毒石 1개, 苦果 6개를 선물로 보낸다. 이의현은 두 책은 서양국의 도술을 말한 것이라고만 언급하고, 흡독석과 고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 효능을 설명하고 있다.<sup>16</sup> <삼산논학기>는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艾儒略(Giulio Aleni, 1582-1649)가 한문으로 저술한 천주교 교리서이고, <주제군징>은 湯若望(Joannes Adam Shall von Bell, 1591-1661)이 저술한 천주교 교리서인데 우주와 인체 조직에 빗대어 천주교를 설명하였기에 醫書로서도 조선의 지식인에게 받아들여졌던 책이다. 이의현은 西教(천주교)와 서양 의술 등을 논한 이들 책에는 西器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잠시 사신 일행의 서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논자에 따라 다양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의현은 “서양의 도는 하늘을 섬기는 것을 위주로 하는데 유가의 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선교와 불교 또한 배척하며 스스로만 높다고 여긴다”<sup>17</sup> 라고 하여 서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비해 1720년 사행의 정사였던 이이명은 蘇霖과 戴進賢에게 보낸 편지에서 서학에 대해 上帝를 대하는 것이나 性의 단초를 회복시키려고 힘쓰는 것은 유교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예수의 탄생설은 석가모니의 탄생과 비슷하고 지옥설은 불교의 인과응보설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했다.<sup>18</sup> 이이명은 서교에 대해 보다 관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1760년에 자제군관으로 연행한 이상봉은 “천주는 생각건대 이른바 조물주라는 것으로 우리 유교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서양인은 삼교(유불도)를 숭상하지 않고 오직 천주만을 높이 받들어 물 한 모금 마시거나 숨 한번 쉬는 것도 모두 천주가 내려준 것으로 여긴다. 그리하여 높이 받들어 모시기를 제왕처럼 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부모와 같이 한다.”<sup>19</sup> 라고 하여 천주는 유교에서 제사하여 받드는 귀신과 같은 존재인데, 이를 제왕이나 부모처럼 받들고 의지한다고 하였다. 이상봉의 경우는 서교에 대한 好惡를 드러내지 않고 그 이치만을 기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765년에 자제군관으로 연행했던 홍대용은 “그 학문의 대강은 하늘을 존숭하여 하늘 섬기기를 佛道の 부처 섬기듯이 하고, 사람을 권하여 조석으로 예배하고 착한 일을 힘써 복을 구하라고 하니, 대개 중국 성인의 道와 다르고 夷狄의 敎會에서 죽히 말할 것이 없다.”<sup>20</sup> 홍대용은 서교를 불교와 비슷한 이적의 교리로 이해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18세기 전반에 선교사들이 사신 일행을 호의적으로 대했던 데에 비해,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선교사들이 사신을 홀대한 것으로 보인다. 홍대용의 <을병연행록>(1865년)에 “읍하고 물러나올 때 이덕성이 말하기를 ‘몇 년 전에는 천주당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 가장 반겨하며 대접하는 음식이 극히 풍비하고 혹 서양국 소산으로 답례하는 예물이 적지 아니하더니, 근래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보챌을 괴로이 여겨 대접이 이리 낙락(落落)하니 통분합니다’ 하였다.” 는 기록에서 이 점이 엿보인다. 이덕성은 천문관원으로 서양 역법을 배우기 위해 홍대용과 함께 천주당을 찾아갔는데, 선교사들이 호의적으로 설명해주지 않고 대접도 소홀함을 보고 천주당을 나오면서 이처럼 불만을 터트린 것이다. 그러다가 1791년 조선왕조 최초의 천주교도 박해사건인 珍山事件<sup>21</sup>이 일어난 이후에는 조정에서 천주당 방문을 금지하는 조치가

<sup>16</sup> 이의현, <경자연행잡지> 참조.

<sup>17</sup> <陶谷集> 권 30, 「壬子燕行雜識」, “西洋之道, 以事天爲主, 不但與儒道背異, 亦斥仙佛二道, 自以爲高.”

<sup>18</sup> <疎齋集> 권 10 「與西洋人蘇霖戴進賢」, “蓋其對越上帝, 勉復性初, 似與吾儒法門, 無甚異同, 不可與黃老之清淨, 瞿曇之寂滅, 同日而論. 又未嘗絕倫背理, 以塞忠孝之塗, 海內之誦義文周孔之言者, 孰不樂聞? 然天主之降, 彷彿牟尼之生, 地獄之說, 反取報應之論, 何也? 思以此易天下則難矣.”

<sup>19</sup> <北轅錄> 권 4, 1761년 1월 8일 기사, “按天主, 卽所謂造物主宰, 如吾儒所謂鬼神也. 西人不尙三教, 唯尊天主, 一飲一啄, 皆以爲天主之賜, 以尊奉之若帝王, 愛戴之如父母.”

<sup>20</sup> <을병연행록> 1766년 1월 7일 기사.

<sup>21</sup> 진산사건은 1791년 전라도 진산군(珍山郡)의 선비 윤지충(尹持忠)과 권상연(權尙然: 윤지충의 外弟)이 윤지충의 모친상(母親喪)을 당하여 신주(神主)를 불사르고 가톨릭교식으로 제례(祭禮)를 지낸 것을 말한다. 조정에서는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진산사건 이후 사신 일행은 의식적으로 천주당을 찾지 않았으며, 선교사들도 이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1798년에 연행한 徐有聞의 <무오연행록>에 “ 우리나라 사람이 이르자 (천주당을) 지키는 자가 묻기를, ‘ 이곳에 다님을 귀국(貴國)에서 금한다 하더니 어찌 왔느뇨?’ ” 라고 한 대목에서 이 점이 확인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18세기에 서양 선교사와 조선 사신들의 만남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상호간 필요에 의해서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조선에서는 정확한 천문 관측기구와 그에 기반한 서양의 천문 역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고, 서양 선교사들은 서양 문물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서교를 전파하고자 했다. 대부분의 조선 사신은 西器의 우월함을 인정하면서도 西教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이른바 東道西器적인 시각으로 서양이라는 타자를 인식하려 했다. 그러면서도 서양이라는 전혀 낯선 타자에 대해서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로 인식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18세기 조선과 서양의 타자 인식은 북경의 천주당을 중심으로 간접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졌지만 비교적 개방적이고 순수한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연행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진산군수(珍山郡守) 신사원(申史源)을 시켜 두 사람을 체포하여 심문하고 그들이 사회도덕을 문란하게 하고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사상을 신봉하였다는 죄명으로 사형에 처했다.